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재준\* · 김도영\*\*

## 〈目 次〉

- |                 |                         |
|-----------------|-------------------------|
| I. 서론           | III.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 II. 이론고찰 및 사례연구 | 1.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        |
| 1. 이론고찰         | 2.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운영        |
| 2. 사례연구         | IV.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 개발    |
|                 | V. 결 론                  |

## I. 서론

도시계획 과정의 시민참여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재준, 2009). 과거 행정주도(top-down)의 도시계획은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더욱 구체화된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황희연, 2008). 지역사회의 참여와 집단학습을 강조하는 형태의 시민참여(Wagenet Linda P, 2007)는 민주사회에서 사용가능한 정보와 의사결정 사이의 심리적 균형감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Umpleby S A, 1972)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수립과정 내에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 의견 청취, 주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시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이륜정, 2009). 그럼에도 우리나라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사전 계획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민원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설문조사나 공청회 혹은 공고, 공람 등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계획 세포제도, 미국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와 같이 시민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은 도입단계이다.

\* 수원시 제2부시장,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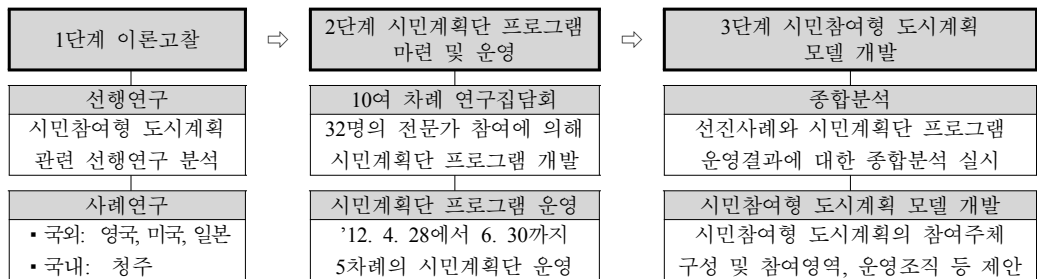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러한 경험적 한계 속에서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sup>1)</sup>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 시민참여 도시계획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와 시민계획단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영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사례는 ① 계획의 성격, ② 시민참여 범주 및 방법, ③ 참여주체별 참여영역, ④ 운영조직 등 4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단계는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단계이다.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32명의 전문가 연구집담회<sup>2)</sup>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5차례의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3단계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 개발이다. 1단계 사례연구와 2단계 시민계획단 운영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은 참여주체 구성 및 참여영역, 운영조직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흐름

- 1) 수원시는 정책제안(좋은시정위원회), 예산수립(주민참여 예산제), 계획단계(시민계획단), 실행단계(마을 르네상스사업), 갈등조정(시민배심원제) 등의 체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 2) 연구집담회는 총괄계획가 3인, 행정 6인, 전문가 9인, 시민단체 6인, 엔지니어링 5인, 언론 3인 등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소수 참여자의 판단이 그 그룹을 대표하게 됨으로써 제기되는 객관성, 참여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Delphi 기법의 근본적 한계로서, 그룹별 인원을 평균 5명 이상(최소 3명) 확보하고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 한계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 II. 이론고찰 및 사례연구

### 1. 이론고찰

시민참여는 손상당한 시민의 위상을 바로잡는 시민주권의 회복운동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우, 1997)이다. 또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는 시민여론(권용우, 2004)이며, 지역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재준 외, 2007)이다. 도시계획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필수적(정환용, 1983)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의 효용성(Mahdavihahad, M, 2011)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전략적 도시재생을 기대(배용규, 2007)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방안(김두환 외, 2007)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활성화는 도시계획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혹은 공고, 공람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계획정보의 사전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민원, 허용 및 미허용 시설에 대한 지역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① 자발적 참여자 확보, ② 시민교육프로그램, ③ 시각정보 제공, ④ 집단토론회 운영(윤혜정, 2008)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시민교육은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이재준 외, 2009)하는 행위이다. 이는 실천적, 통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김진경 외, 2012)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일상에서 시민참여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웹기반 시설을 활용한 주민참여기법과 이에 맞는 서비스와 기술이 필요(김세용 외, 2006)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이 도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시정보시스템과 연계(노유탉 외, 2009)하고, 이를 운용하는 상설기구 창설(고준환 외, 2012)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정훈, 2012)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듯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인정됨에도 국내에서는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결과가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결정구조를 통해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사례연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은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이 중 런던플랜(영

국 런던), PlaNYC(미국 뉴욕), FNP(독일 베를린), 환경기본계획(일본 히노시) 등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런던플랜 등의 선진사례를 운영조직, 주체별 참여범위, 계획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런던과 뉴욕은 일반행정에서 독립된 기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해, 베를린은 도시계획 수립하는 도시발전국이 별도로 존재하며, 히노시와 청주시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런던은 시장과 시의원 25명이 참여한 GLA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뉴욕과 히노시가 시장실 직속기구로, 베를린과 히노시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런던, 뉴욕, 베를린이 시민과 전문가 협업에 의해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히노시는 전문가의 지원 속에 추진되며, 청주시는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계획내용은 뉴욕이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이고, 런던, 베를린, 히노시는 전략계획과 종합계획의 성격을 모두 지니며, 청주시는 종합계획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런던, 뉴욕, 베를린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히노시는 주요계획 수립, 청주시는 주요계획 방향을 설정한다. 이 중 런던과 뉴욕의 시민들은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베를린, 히노시는 공간계획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청주시에서는 계획일부에 참여하였다.

〈표 1〉 사례연구 종합

구 분		런던	뉴욕	베를린	히노	청주
운영조직	조직형태? ☐: 독립기구, ■: 별도기구, ◦: 일반부서	☐	☐	■	◦	◦
	조직의 위계? ☐: 시장+시의회, ■: 시장, ◦: 행정국	☐	■	◦	■	◦
	참여그룹? ☐: 시민단체+전문가, ■: 전문가지원, ◦: 전문가운영	☐	☐	☐	■	◦
계획의 성격	계획의 성격? ☐: 전략계획, ■: 전략+종합, ◦: 종합계획	■	☐	■	■	◦
	계획의 구체성? ☐: 전략, ■: 계획, ◦: 방향	☐	☐	☐	■	◦
	시민참여 범주? ☐: 모든 범위, ■: 공간계획, ◦: 계획일부	☐	☐	■	■	◦
주체별 참여범위	일반시민? ☐: 직접참여, ■: 간접참여, ◦: 비참여	■	☐	■	☐	◦
	시민단체? ☐: 직접참여, ■: 간접참여, ◦: 비참여	■	☐	☐	☐	■
	시의회? ☐: 직접참여, ■: 간접참여, ◦: 비참여	☐	■	◦	■	◦
	전문가? ☐: 직접참여, ■: 간접참여, ◦: 비참여	☐	☐	■	☐	■
	기업? ☐: 직접참여, ■: 간접참여, ◦: 비참여	☐	◦	◦	◦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참여정도에 따라 직접참여, 간접참여, 비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뉴욕과 히노시에서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런던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 III.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1.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 마련은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등이 참여를 통해 진행하였다. 1차 회의<sup>3)</sup>는 의견수렴, 2~3차 회의는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4차 회의는 자문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의 주요 논점은 프로그램 명칭, 시민모집 및 분과구성, 추진조직 및 일정, 세부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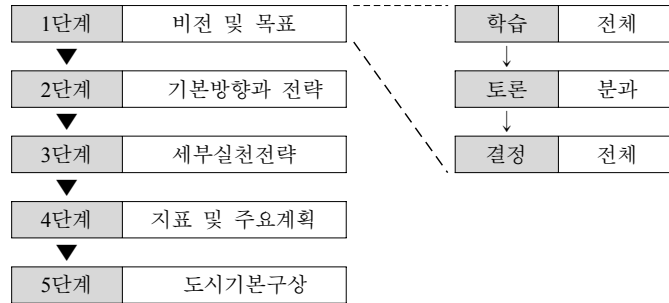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명칭은 시민계획단,<sup>5)</sup> 모집인원은 시민계획가 130명, 청소년계획가 100명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6개 분과<sup>6)</sup>로 구성하여 한 개 분과에 20여 명의 구성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용역사, 언론 등이 결합한 운영조직을 마련하였다.

〈표 2〉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집담회 결과

구 분	1차 회의 (’11. 11. 11)	2차 회의 (’11. 12. 9)	3차 회의 (’12. 3. 8)	4차 회의 (’12. 3. 30)
1. 회의성격	의견수렴	브레인스토밍	좌동	자문
2. 주요논점				
2.1 명칭	시민자문단	시민계획단	좌동	좌동
2.2 시민모집	non	시민 120명	시민 120명 (별도 청소년 100명)	시민 130명으로 증원
2.3 분과구성	non	참여주체 기준 6개 분과 <sup>4)</sup>	주요현안 기준 6개 분과	좌동
2.4 추진조직	①③④⑤	①②③④⑤⑥	좌동	좌동

\* 추진조직: ① 총괄계획가, ② 전문가(지원조직), ③ 공무원, ④ 시민단체, ⑤ 용역사, ⑥ 언론

- 3) 연구집담회는 10여 차례 진행되었으나, 시민계획단 프로그램에 구체적 변화를 준 4차례 회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4) 최초의 분과구성은 도시기본계획 참여주체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 수원발전연구센터, 수원의제21, 마을 르네상스센터, 수원 경실련, 시민사회단체 등 6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 5) 최초 시민자문단은 간접참여의 성격이 강해, 직접 계획수립의 의미를 담은 시민계획단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 6) 수원시 주요현안을 고려하여 구도심활성화, 균형발전, 환경수도, 마을만들기, 경제활성화, 역사문화도시 등



〈그림 2〉 시민계획단 운영일정

## 2.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운영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sup>7)</sup>의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조직으로 〈그림 2〉와 같이 비전 및 목표(1단계), 기본방향과 전략(2단계), 세부실천전략(3단계), 지표 및 주요계획(4단계), 도시기본구상(5단계) 등 5단계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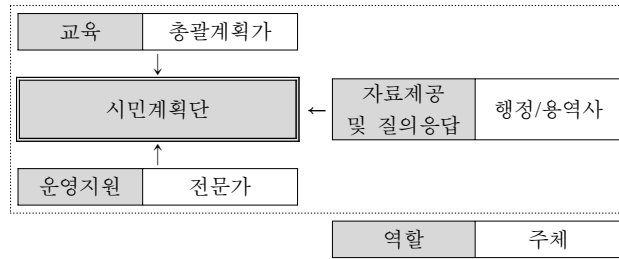
매 단계별로는 계획내용에 대한 학습,<sup>8)</sup> 분과별 토론에 이어, 전체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특히 분과별 토론은 시민계획단의 주된 활동으로 행정에서 제공된 기초자료를 숙지<sup>9)</sup>한 후, 시민계획단 중 분과장<sup>10)</sup>을 선발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의견을 종합 정리(간사)하고 기록(간사보)하는 운영지원팀과 시민계획단의 질의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을 배치시켰다.

시민계획단 토론에서 제안된 의견은 시민계획단의 결정(전자투표)<sup>11)</sup>을 통해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3단계 회의에서는 비전 및 3대 목표, 12대 전략, 36대 세부실천전략을 설정하였다. 또한 4단계 회의에서는 4개 주요계획<sup>12)</sup>에 대한 의견수렴, 복지 중심의 지표와 시민 실천지표 등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5단계(6월 30일) 회의에서는 개발기본구상 등 수원시 공간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 7)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8) 도시계획은 주거환경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참여시민은 도시계획 용어, 수립방법, 절차 등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을 선행하였다.
- 9) 기초자료는 단계별 토론주제와 대안(예시)을 포함하며, 회의 일주일 전 개별 발송하였다.
- 10) 분과장은 6개 분과별로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 11) 결정은 분과별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투표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참여자 1인 1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12) 주요계획은 수원시의 현안사업으로 ①②③④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3〉 시민계획단 토론 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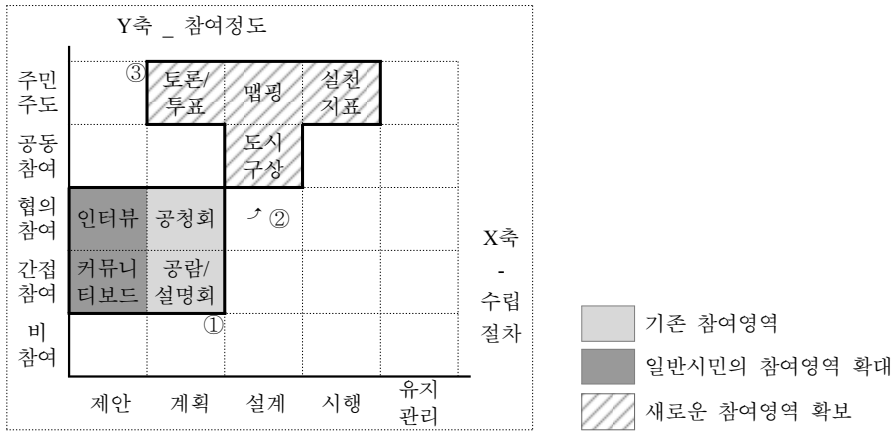
1단계	-비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거버넌스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등 3대 목표
2단계	-누구나 존중받는 복지도시 등 12대 전략
3단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등 36대 세부실천전략 -복지 중심 지표 설정 결정
4단계	-4개 주요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 실천지표: 매년 이웃사촌 3가족 이상 만들기, 가정마다 월1회 자원봉사하기 등
5단계	-개발기본구상: 5개 권역으로 설정 -개발축 구상: 1도심 6부도심 -생활권 구상: 5개 중생활권 설정

〈그림 4〉 시민계획단 운영결과

〈표 3〉 시민계획단 의견 종합

구 분	참여대상	참여방법	참여결과(건, %)			
			기본계획 반영	시정책 반영	기타 의견	계
직접 참여	분과토론	시민계획가	278(82.0)	61(18.0)	0(0.0)	339(100)
		청소년계획가	75(61.0)	44(35.8)	4(3.2)	123(100)
	소계	-	353(76.4)	105(22.7)	4(0.9)	462(100)
간접 참여	인터뷰	시민계획단+ 일반시민	9(23.1)	24(61.5)	6(15.4)	39(100)
	커뮤니티 보드	일반시민	30(2.7)	1,017(90.3)	79(7.0)	1,126(100)
	소계	-	39(3.3)	1,041(89.4)	85(7.3)	1,165(100)
총계			392(24.1)	1,146(70.4)	89(5.5)	1,627(100)

시민계획단은 분과토론을 통해 직접 참여하였으며, 일반시민의 의견개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터뷰 및 커뮤니티 보드<sup>13)</sup>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1,627건 중 24.1%(392건)가 도시



〈그림 5〉 시민계획단 성과 및 의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그 중 시민계획단은 총 462건의 의견 중 76.4%(353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22.7%(105건)는 시정책에 반영, 0.9%(4건) 기타의견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반해 간접 참여(인터뷰, 커뮤니티보드) 방식은 총 1,165건 중 3.3%(39건) 반영, 89.4%(1,041건) 시정책 반영, 7.3%(85건)이 기타의견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그림 5〉와 같이 일반시민의 참여영역을 확대(①)하였다. 기존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과정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인터뷰, 커뮤니티보드 등 제안단계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아래로부터의 계획수립에 기초를 다졌다. 또한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②)하였다. 시민계획가 130명, 청소년계획가 100명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토론, 도시구상, 실천지표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토론위주의 참여(③)가 이루어졌다. 토론위주의 참여는 계획단계의 논의구조를 설계, 실행단계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제안된 의견의 내실화로 도시기본계획 및 시정책에 반영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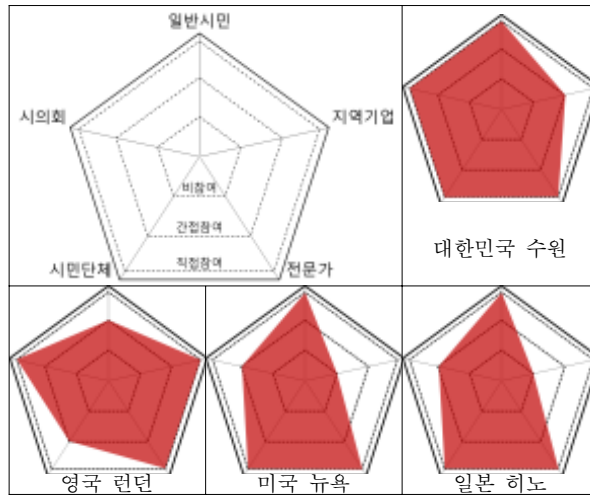
#### IV.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 개발

앞서 살펴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선진사례와 수원시 시민계획단 운영사례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구성체계와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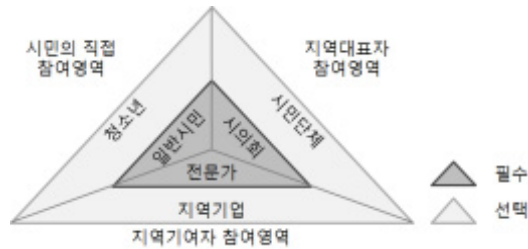
구성체계는 참여주체, 운영조직, 시민참여 영역으로 구분된다. 참여주체는 일반시민, 기업 등 다양한 계층과 간접참여에서 직접참여에 이르는 참여형태로 〈그림 6〉과 같이 분석되었다.

13) 커뮤니티 보드는 일반시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시청 및 39개 주민자치센터 등 총 40개소에 설치하였다.





〈그림 6〉 참여주체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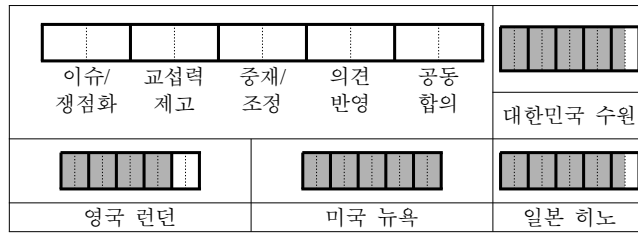
〈그림 7〉 참여주체 구성체계

이 같은 분석내용을 기초로 〈그림 7〉과 같이 참여주체는 시민의 직접참여, 지역대표자의 참여, 지역 기여자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시민의 직접참여는 일반시민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되,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기회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참여하되, 대표성을 인정받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역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운영하는 조직은 총괄계획가, 전문가, 행정, 엔지니어링, 시민단체, 언론이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림 8〉과 같이 분석되었다.

운영조직은 〈그림 9〉과 같이 참여시민 지원, 도출된 의견 반영, 지속적인 계획 구현 및 소통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참여시민 지원은 토론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되,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참여를 권장한다. 또한 행정이 참여하여 시민의 제안사항을 계획에 반영시키고 실무적 감각을 보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립된 도시계획의 지속적인 구현을 위하여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언론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11〉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성과에 대한 분석

〈표 4〉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의 운영체계

구 분		주요내용
참여방식	단계별 계획수립	비전 및 목표 → 기본방향과 전략 → 세부실천전략 → 지표 및 주요계획 → 도시기본구상 등 5단계 계획수립
	이슈별 분과토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이슈별 분과 구성, 분과별 20명 내외의 구성원
참여방법	직접참여	적극적 계획수립이 가능한 시민참여 영역 확보, 토론 중심의 계획수립
	간접참여	일반시민의 의견개진 기회 제공,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의견 수렴판 제공
커리큘럼	체계적 계획 프로세스	교육 → 토론 → 결정 프로세스 마련
	점검 및 모니터링	시민참여에 의해 수립된 계획내용의 지속적인 점검, 상설조직 마련

도시계획에 시민참여 영역 확대를 통해 도시의 주요의제를 쟁점화시키고 교섭력 제고, 의견조정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성과는 〈그림 11〉과 같이 분석되었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시민이 전문적인 도시계획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의 운영체계는 시민계획단 경험을 기초로 참여방식, 참여방법, 커리큘럼 등을 〈표 4〉와 같이 제안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의 구성체계와 운영체계

14)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통해 9가지의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계획범위도 포함시켜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이의 개정이 요구된다.

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개발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은 구성체계와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구성체계는 연령, 지역, 직업, 성별 등 다양한 참여주체 확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마련,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수립, 시민의 직접참여를 제안한다. 운영체계는 단계별, 이슈별 참여방식 마련, 다양한 참여방식 확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다.

둘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은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에 기초한 도시계획 수립 모델을 수원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계획수립 과정에 나타나는 변수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자체별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 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상향식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동 단위의 계획수립을 제안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나, 행정동 단위의 마을계획을 종합하는 형태의 실질적인 상향식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동 단위의 마을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준환·김문기(2012),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방안: 서울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2): 71-79.
- 권용우(2004), 도시개혁과 시민참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7(1): 13-27.
- 김두환·이윤상·이삼수(2007),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조정. 시민사회와 NGO 5(1): 241-269.
- 김세용·박현수(2006), 도시계획과정에서 웹 기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2): 199-211.
- 기정훈(2012), Open API Mashup 활용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7(5): 93-101.
- 김진경·김현·이재준(2012),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연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학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2): 57-67.
- 노윤탁·김성아(2009), 시민참여형 U-City 구현을 위한 도시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연구. 대한건

-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7-60.
- 배용규(2007), 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저소득층 주거지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51(9): 36-37.
- 이기우(1997), 시민주권의 회복과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11-127.
- 이륜정(2009),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참여목적에 따른 주민참여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준 · 안상욱 · 김도영 · 최석환(2009) 시민참여형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44(3): 247-259.
- 윤혜정(2002), 미국의 스마트성장파 도시개발정책의 시사점.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37(7): 7-16.
- 황희연 · 전원식 · 박원규(2008),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사례의 사업주제별 유형과 특성분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43(6): 89-110.
- Jones, Paul. S. (1974) Citizen participation in westside transportatio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o. 528, pp.1-8.
- Mahdavinejad, M. and Amini, M. (2011) Public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Urban Planning in Case of Iran. Procedia engineering, 21, pp.405-413.
- Umpleby, S. A. (1972) Is greater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possible and desirabl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4(1), pp.61-76.
- Wagenet, Linda. P. and Pfeffer, Max. J. (2007) Organizing Citizen Engagement for Democratic Environmental Planning. Society & natural resources, 20(9), pp.801-813.